

## 東武 李濟馬와 崔文煥의 亂

朴 性 植\*

### Dong-Mu Lee Je-Ma and The Rising of Choi Moon-Hwan

*Park Seong-sik*

Departmen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Kyungju, Korea

Purpose : Dong-Mu(東武) Lee Je-Ma(李濟馬) was designated as a member of fifty persons 'The Wise Ancestors of Korean Culture and Art' in 1984 and the december of 1996 was appointed as 'The Month of Lee Je-Ma'. Though his achievements was valued like this, some historian criticized that he suppressed the righteous army. So this study was for clarifying the background, the motive, and the course of 'The Rising of Choi Moon-Hwan' occurred in Hamhung on february in 1896, and for the correct appraisalment about this event. And also through this, author tried to make clear the origin of Lee Je-Ma's thought.

Method : After studing the background of the end of Chosun dynasty and the righteous army in 1895(乙未義兵), Author made a comparative study through the historical materials of the government side, the Choi Moon-Hwan side, and the Lee Je-Ma side about 'The Rising of Choi Moon-Hwan' occurred in Hamhung on february in 1896.

Results & Conclusion : The event occurred in Hamhung on february in 1896 was a part of rebellion of the righteous army in 1895 which had risen against The startling Occurrence of 1895'(乙未事變) and 'The Royal Commands To Cut Off People's Hair'(斷髮令). Lee Je-Ma suppressed the Rising and put Choi Moon-Hwan in the prison, and which was criticized that he suppressed the righteous army later day. That time was a conflict period between conservatism and civilization, and the Lee Je-Ma's act was the best way to protect the security of residents from the attack which maybe occurred by

---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Japanese army in Wonsan. Judging from this events, author could find Lee Je-Ma's thought was quite different from righteous army's neo-confucianism and conservatism. In the aspect of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 Movement', further study about Choi Moon-Hwan, the chief of righteous army will be need.

Key Word : Lee Je-Ma, The Rising of Choi Moon-Hwan, The Righteous Army in 1895, The Royal Commands To Cut Off People's Hair, Conservatism, Civilization, Neo-confucianism

## 초 록

연구 목적 : 동무 이제마는 1984년에는 '韓國文化藝術先賢' 50인 중의 한 사람으로 지정되고, 1996년에는 12월이 '이제마의 달' 로 지정되어 그의 업적을 기념하였으나, 일부 역사가는 그가 1896년 咸慶道 義兵將 崔文煥을 잡아 가둔 인물이라 하여 그의 업적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896년 함흥에서 일어난 소요를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 및 발생 동기와 경과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評價를 내리고, 이를 통해 李濟馬의 思想的 淵源을 연구하는데 단서를 찾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먼저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과 을미의병에 대해 살펴 보고 1896년(丙申) 함흥에서 최문환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政府側 기록, 義兵(崔文煥)側 기록, 李濟馬側 기록,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나타나는 其他 史料들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 1896년 2월 咸興에서 일어난 혼란은 乙未事變과 斷髮令으로 폭발한 乙未義兵運動의 일환으로 崔文煥이 중심이 되어 斷髮令을 강요하던 官吏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때 李濟馬는 최문환을 붙잡아 가두고 亂을 진압하여 훗날 '의병을 탄압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시는 守舊와 開化가 충돌하는 시기였으며, 이러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元山 日本軍의 공격으로부터 住民의 安全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근거로 보아 이제마는 儒生義兵들이 주장하던 衛正斥邪의 朱子學的 文化理念이나 復古主義的 政治理念과는 다른 思想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면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韓國 民族運動史의 側面에서 義兵將 崔文煥에 대한 좀 더 많은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어 : 李濟馬, 崔文煥의 亂, 乙未義兵, 斷髮令, 守舊, 開化, 朱子學, 衛正斥邪

## I. 緒 論

東武 李濟馬(1837-1900)는 사상의학을 창안한 공로로 1996년 대한민국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한 문화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즉 문화체육부는 1996년 12월을 '이제마의 달'로 지정하였고 학계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념한 바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대한민국 문화공보부에서는 1984년 '韓國文化藝術先賢'으로 50인을 국민의 師表로 선정하면서 과학 기술 부분에 李濟馬를 선정하였다.<sup>1)</sup>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마가 '韓國文化藝術先賢'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1896년 咸慶道 義兵將 崔文煥을 잡아 가둔 인물이라하여 국민의 사표로 추앙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sup>2)</sup> 한의학계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洪<sup>3)</sup>은 최문환이 원산에 주둔한 일본수비를 친다는 허세를 부리며 평강진군대와 호응 모반을 계획하였는데 이제마가 이를 진압한 것이라 하였고, 宋<sup>4)</sup>은 開化와 守舊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하나로 東武가 群民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亂을 진압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역사학자인 이<sup>5)</sup>는 이부분에 대해 "어쨌든 의병장 최문환을 체포한 탓으로 그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저자는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에 대하여 報告한 바 있다.<sup>6)</sup> 그러나 1896년 咸興에서 崔文煥이 일으킨 혼란에 대한 성격규명과 발생원인에 및 이

에 대한 평가는 다음으로 미루었다. 이에 저자는 東武 李濟馬의 生涯에 대한 후속 보완작업으로 1896년 함흥에서 일어난 소요를 중심으로 史料들을 찾아 당시의 시대상황 및 발생동기와 경과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評價를 시도 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하여 李濟馬의 思想的 淵源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 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 II. 時代的 背景

### 1. 朝鮮 後期 近代社會로의 變化에 대한 時代的 概觀<sup>7)</sup>

조선 후기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분에 걸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확실히 새로운 시대의 맹아가 나타나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힘찬 움직임이었다.

우리 역사상 근대를 어디에서부터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학문적 수준으로도 몇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문호개방 이전의 조선왕조 후기 특히 18세기경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은 그것이 우리 근대사를 이루는 하나의 배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문호개방에서 '합방'까지의 시기를 정치적으로 민족 국가

1) 동아일보 : 1984년 10월 20일 6면

2) 동아일보 : 1985년 1월 21일 6면

3) 洪淳用 : 東武의 生涯와 思想, 동양의학26호 9(3):4-9, 1983

洪淳用·李乙浩 譯述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85, pp. 393-402

4) 宋一炳 : 李濟馬 生涯의 시대적 배경, 漢醫師協報, 1985년 8월 15일 5면

5) 이이화 : 이야기 인물한국사 1, 서울, 한길사, 1993, pp.333-339

6) 박성식 : 동무 이제마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8(1):17-32, 1996

7) 邊太燮 : 韓國史通論(四訂版), 서울, 일조각, 1997, pp.369-432를 중심으로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수립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를 지향하던 시기로 이해하여 근대사로 한다.<sup>8)</sup>

조선 후기사회는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농업생산력이 급증하고 상업자본의 성장이 나타나 사회변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사회적 면에서 부의 축적에 따른 신분의 상승이 일반화 되어 양반사회의 신분구조가 붕괴되고 있었으며, 사상체계로서 실학이 발생하여 사회개혁과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천주교가 전래되어 전통사회의 질서와 가치규범에 도전하였으며, 동학이 일어나 농민층을 중심으로 현실개혁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세도정치가 빠져 있었으나 점차 이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근대화를 지향하게 된다.

한국 근대사의 특징은 開化와 保守의 葛藤, 그리고 外勢의 侵略에 대한 民族의 抗爭에서 찾아진다. 쇠국정치로 일관하던 조선은 대원군의 하야와 민씨 일파의 집권으로 일본과 1876년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맺어 부산과 그밖의 두 개의 항구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후 조선은 1879년 元山<sup>9)</sup>과 1882년 仁川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개항이후 세계정세에 대한 견문의 확대는 개화사상을 고조시켜 제도의 개편과 부국강병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반면에 외세의 침투로 인한 위기의식은 개화에 대한 강한 반대(衛正斥邪論)로 나타났다. 주로 性理學을 신봉하는 保守的인 儒生들에 의해 주도된 尊王攘夷인 衛正斥邪運動은 당시 정부의 개화정책이 외세의 침투에 직면하여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뒷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었을 때 이 衛正

斥邪運動이 抗日義兵運動으로 연장된다.

개화와 보수의 대립은 민씨와 대원군의 정치적 싸움에 얽혀 1882년(고종 19) 壬午軍亂과 1884년(고종 21) 甲申政變으로 나타났다. 그 후 전근대적 사회체제에 대한 개혁운동이자 외세침략에 대항하는 동학혁명이 1894년(고종 31) 일어났다. 이 동학혁명으로 청일전쟁이 야기되어 마침내 청의 세력이 조선으로부터 밀려나고 일본이 조선 침략의 기틀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일본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구성하여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甲午更張이다(1894, 갑오개혁).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조선에서의 우세와 대만과 요동반도를 할양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세력 확장에 대해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독일·프랑스와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포기하도록 하였다(삼국간섭, 1895). 삼국간섭의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자 조선정부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閔妃는 李範晉·李完用 등을 기용하여 새로이 친러정부를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초조함을 느낀 일본은 1895년 10월 閔妃 弑害事件(乙未事變)을 일으키고 김홍집을 중심으로한 친일내각을 구성하였다. 새 내각은 甲午改革 이후 중지되었던 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였다(乙未改革). 太陽曆을 사용하고 종두법을 시행하며 개성·수원·충주·안동·대구·동래 등지에 郵遞司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建陽이란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斷髮令<sup>10)</sup>을 공포하여

8) 강만길, 한국근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pp. 9-12

9) 1879년(己卯) 원산이 개항된 때는 東武 43세 때 이며, 45세 때인 1881년(辛巳)에 東武가 日本人 巡査와 원산항에서 問答하는 내용이 東武遺稿에 나타나 있다.

10) 단발령은 1895년(乙未) 11월 15일 발표되었는데 양력으로는 12월 30일 이었다.

국왕이 앞장서 시범을 보이면서 머리를 자를 것을 국민에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을미개혁은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더욱이 민비의 시해와 단발령의 반포는 국민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이리하여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과 친일정부에 무력으로 항쟁하기 시작하였다(乙未義兵). 대표적인 의병장은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소응 등이었다. 의병의 지도자들은 덕망있고 학식있는 지방의 유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개항전후에 일본과의 수교와 정부의 개화시책을 반대하였던 위정척사운동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여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주권을 지키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기인 1896년 2월 친러파 이범진 등이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공모하여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도록 하였다(俄館播遷).

아관파천후 약 1년만에 고종이 환궁하자 조선정부는 大韓帝國을 칭하고 년호를 光武, 국왕을 황제라 고쳤다(1897. 10). 그후 일본은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였고, 1905년에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1910년에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하고 한국인은 주권을 빼앗긴채 일제의 식민지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 2. 乙未義兵<sup>11)</sup>

### 1) 義兵의 概念과 性格

의병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의병이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 국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sup>12)</sup>

의병이란 말은 역사용어가 아니라 일반명사이다. 따라서 외침에 맞서 항쟁할때에 의병을 표방했고, 지배세력에 맞서 봉기할 때에도 의병이라 했다. 또 의병은 제도의 군대가 아닌 민중의 자발·자원에서 이루어진 군대이기에 의병은 관군과 엄격히 구분되는 의용병(volunteer)이다. 이 의병은 국가나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起義하는 경우도 있고, 변란이나 내란을 막기위해 勤王兵의 성격을 띠는 수도 있고, 부정한 지배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擧義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 말에 일어난 의병은 일제 침략의 저지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를테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의였다. 그러기에 국권이 완전히 상실된 시기, 곧 1910년 이후의 항일 투쟁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다.<sup>13)</sup>

1896년 1월부터 1910년 韓日合併 때까지 있었던 韓末 義兵運動은 전개시기와 농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初期 의병운동(乙未의병), 中期 의병운동(丙午의병), 末期 의병운동(丁未의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4)</sup>

한말 의병운동도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의병운동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한말의

11) 甲午更張의 일환으로 乙未改革 때 曆制를 고쳤다. 그 결과 음력 1895년(乙未)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하고 年號를 建陽이라 하였다. 義兵들은 舊曆을 썼으며, 의병이 일어난 것이 舊曆으로 乙未年 11월 부터였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乙未義兵이라 했다.

12) 金鎬城: 韓末 義兵運動史 研究, 서울, 고려원, 1987, p.16-17

13) 國사편찬위원회: 한민족 독립운동사 1, 서울, 탐구당, 1987, p.306

14) 金鎬城: 앞 책, p.15

병이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세력에 한정되어 있지않고, 직접적인 침략세력인 일본 뿐만 아니라 그 배후세력인 서구와 일본의 조정을 받는 朝廷의 중신 및 지방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sup>15)</sup>

## 2) 乙未義兵의 發生 背景

을미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의 을미개혁을 계기로 봉기하였다. 을미사변의 명성왕후 시해는 한국인에게 큰 충격적 사건이었는데 특히 儒林에게는 심각한 격분을 불러 일으켰다. 국모가 시해된 1895년은 동학농민 혁명운동의 뒷끝으로 사회가 불안정하였고, 淸日戰爭의 전운도 가시지 않던 속에서 일제는 궁궐을 점령하여 친일내각을 앉혀 놓았고, 한편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를 없애고 班常을 타파하는 등, 격동적인 변화가 휘몰아 치던 때였다. 그러한 때에 가장 탄압받고 피해가 예상된 사람들은 東匪 殘黨의 색출에 늘려있는 동학농민과, 외세에 대하여 斥邪적이요 과거제도와 반상타파로 손해를 입은 봉건적 양반이었다. 이러한 때 명성왕후의 시해는 봉건적 양반에게는 충격적이었으며 유럽사회에서 대채공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중에 갑오개혁의 후속작업인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을 공포하여 강요하니 더 참을수 없게 된 유생들이 일제히 봉기한 것이다. 그리하여 단발을 집행하는 지방의 단발관리, 을미개혁을 추진한 친일내각과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을미개혁을 조종하고 있던 日本凶賊을 표적하여 의병이 일어난 것이다.<sup>16)</sup>

## 3) 乙未義兵의 理念과 思想

을미의병의 사상은 두 측면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가 衛正斥邪의 朱子學的 文化理念이고 또 하나가 甲午·乙未改革에 반대한 復古主義의 政治理念이다. 위정척사론은 朱子學(유교)의 保衛 논리인 동시에 反朱子學(邪)의 斥出思想이었다. 주자학의 본산인 明나라가 오랑캐인 淸에게 멸망한데 대하여 일으킨 聖地(明) 회복의 논리인 北伐論에서부터 衛正斥邪의식이 사상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邪의 실체가 변화할때마다 즉, 천주교·서양제국주의·일본제국주의가 나타날 때마다 조선만이 지키고 있는 朱子學을 보위하기 위하여 척사의 논리를 앞세워 싸웠는데 丙寅洋擾 때부터 武力抗爭으로 나타나 乙未義兵 때 그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다. 복고주의 정치이념은 갑오개혁의 과거폐지로 출세의 길이 막히고 반상의 폐지로 양반특권을 빼앗기고 또 을미개혁으로 관제·행정구역·역법 등을 바꾼데 대하여 반대한 것으로 당시 거의 모든 의병들의 격문에 나타나 있었다.<sup>17)</sup>

을미의병들의 격문에 나타난 구체적 목표를 보면 당장에 단발령을 철폐하고 친일내각을 퇴진시키고 다음에 일본군의 축출에 있다.<sup>18)</sup> 따라서 乙未義兵은 斥邪義兵이었고 復古主義義兵이었다. 즉 朱子學(衛正)과 保守의 긍정논리위에 斥邪와 反開化의 부정논리를 관철하기 위한 武力抗爭이었다.<sup>19)</sup>

## 4) 乙未義兵의 組織과 展開

을미의병의 지도층인 義兵將은 儒生들이었으며

15) 金鎬城 : 앞 책, p. 20

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6, pp. 13-14

17)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 앞 책, pp. 14-16

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 앞 책, p. 19

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 앞 책, p. 21

이들은 學統性和 鄉土性的 특징을 갖고 있었다. 兵士部인 농민은 傭兵的 성격을 띤 砲手農民, 官의 東匪殘黨 색출에 자신을 숨기기고자 하는 東學農民, 그리고 儒生 의병장에 從屬的 성격을 띤 小作農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0)</sup>

1895년 10월 11일 文錫鳳의 報恩를 시초로 전국적으로 봉기하였는데 주로 中部地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충청도 堤川의 柳麟錫, 洪州의 金福漢, 경상도 聞慶의 李康年, 善山의 許薦 전라도 長城의 奇字萬, 강원도 春川의 李昭應, 江陵의 閔龍鎬, 경기도 麗州의 沈相禧, 利川의 朴準英 등이 기세를 떨쳤다.<sup>21)</sup>

### Ⅲ. 崔文煥의 亂에 대한 史料調査

본 연구는 1896년(丙申) 함흥에서 최문환을 중심으로 일어난 혼란의 원인과 경과과정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政府側 기록, 義兵(崔文煥)側 기록, 李濟馬側 기록,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나타나는 其他 史料들을 모두 찾아 비교 검토해야 한다.

#### 1. 政府측 기록

##### 1) 日省錄<sup>22)</sup>

丙申年 3월 4일 (양력 4월 16일) : 內閣以咸興府 羅州府 海州府 江陵府 安東府 亂民起擾矣. 該閣奏言 今聞咸興府參書官 陸裕信 主事 皮相國 洪丙贊 …… 該地方 亂民起擾時 遇害云矣.

3월 10일 (양력 4월 22일) : 內部以觀察使參書官 及郡守任免奏 大臣朴定陽 …… 咸興府參書官 金宅洙 ……

4월 26일 (양력 6월 7일) : 咸興府觀察使金裕成 陳疏自引賜批

5월 21일 (양력 7월 1일) : 咸興府觀察使金裕成 陳韶乞遞賜批許之

7월 4일 (양력 8월 12일) : 譴責 …… 前咸興府 觀察使金裕成 ……

10월 3일 (양력 11월 7일) : 法部奏言 …… 前咸興府觀察使金裕成見失重囚事行將審辦而 …… 刑律 名例第二十八條 請拿致允之

##### 2) 官報<sup>23)</sup>

(1) 관보 227호 (건양원년 1월 21일)

1월 18일자로 함흥부관찰사 金裕成을 함흥부재판소 판사를 兼任하며 함흥부참서관 陸裕信을 함흥부재판소 검사를 兼任하게 하는 내용.

20)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 앞 책, pp. 16-19

21) 金鎬城 : 앞 책, pp. 44-47

22) 日省錄은 1760(英祖 36) 1910(隆熙 4)년간의 國政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日記體의 年代記로 君主의 自省을 위해 편찬된 것임.

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 日省錄 고종편 33, 影印本, 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發行, 1970, P. 55, 99, 119, 169, 251

23) 官報는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널리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公告機關紙로 政府 官報局과 官報課에서 발행된 것이다. 창간호로 짐작되는 관보는 甲午(1894) 六月 二十一日로 음력을 사용하였다. 처음 발행된 관보는 호수를 매기지 않다가 1895년 4월 25일에 비로소 호수를 매긴 제1호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1973년 亞細亞文化社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각 도서관 소장본을 모아 舊韓國官報를 출간하였다.

(2) 관보 282호 (건양원년 3월 25일)  
3월 24일자로 李濟馬를 三品 北路宣諭委員<sup>24)</sup>에  
任命하는 내용.

(3) 관보 308호 (건양원년 4월 24일)  
함흥부 主事 金宅洙를 함흥부參書官으로 임명.

(4) 관보 491호 (건양원년 11월 26일)  
11월 23일자로 李濟馬 高原郡守에 임명됨.

(5) 관보 926호 (광무2년, 4월 18일)  
4월 13일자로 李濟馬 高原郡守 免職됨.

3) 起 案<sup>25)</sup>

(1) 起案 제 26호<sup>26)</sup>

建陽元年 (1896년 5월)

法部大臣이 함흥부에서 체포한 崔文煥과 金子玉  
을 함흥부관찰사 金裕成의 보고에 의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內部大臣에게 통고하는 내용.

(2) 起案 제 5호 (訓令咸鏡南道 件)<sup>27)</sup>

建陽元年 (1896년 10월 6일)

法部大臣이 함흥군에 閔龍鎬 崔文煥 등이 이끄는  
亂徒 160여명이 城을 습격하여 罪人 黃雲鶴 成基豐  
金子玉 등을 구출하고 軍器를 탈취한 사건에 대해

咸興郡守에게 도주한 閔龍鎬 崔文煥을 조속히 체포  
하라고 지시한 내용

(3) 案 제 11호 (訓令咸興裁判所件)<sup>28)</sup>

建陽元年 6월 6일

법부대신이 함흥부에 간혀있던 죄인 崔文煥이 本  
月 17日 卯時경에 枷鎖를 풀고 도망한 것에 대해  
當夜守直한 刑吏 金順命과 鎖匠 朴永萬을 조사할  
것을 함흥관찰사 김유성에게 지시하는 내용

(4) 案 제 19호 (訓令咸興府件)<sup>29)</sup>

建陽元年 6월 18일

법부대신이 함흥부 죄인 최문환이 도망갈 당시  
監獄 刑吏 金順命과 鎖匠 朴永萬을 押上할 것을 함  
흥관찰사 김유성에게 지시하는 내용

4) 司法稟報<sup>30)</sup>

(1) 보고서 제1호

建陽元年 4월 14일 함흥관찰사 김유성이 법부대  
신에게 최문환 체포 구금사실을 보고하는 내용

……金裕成이 4월 11일 함흥에 도착하여 前日 日  
人 巡檢과 參書官 睦裕信을 살해한 사건을 조사한  
바 음력 정월 14일에 元山港 巡檢 2인이 服章과 軍  
刀를 車에 싣고 府內로 들어 올때 年例로 便戰하던  
아이들이 이를 보고 괴이하게 여겨 따라가며 놀리

24) 1896년 2월 아관파천후 친러파 내각은 국왕의 조칙으로 의병장들의 죄를 불문에 붙이고 단발령을 중지한다고 포고하  
고 정부군을 소환하였다. 그리고 각지로 선유사를 파견하여 의병의 해산을 종용하였다.

25) 당시 중앙정부 法部の 文書,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관리와의 보고서류 및 訓令이 들어있다. 法部 起案은 규장각 소장  
등록번호 17277의 1 法部檢査局編 33冊, 규장각 소장 등록번호 17277의 2 法部刑事局編 42冊, 규장각 소장 등록번  
호 17277의 9 法部刑事局編 4冊이 있다.

26) 法部檢査局編

27) 法部檢査局編

28) 法部刑事局編

29) 法部刑事局編

30) 중앙정부 法部の 문서. 奎章閣 所藏 등록번호 17278. 法部編.



자 巡檢이 칼을 빼서 목을 하므로 아이들이 돌을 던져 한 사람은 즉사하고 한 사람은 위험을 면했으며, 또 일본인 한명이 行商으로 성에 머무르다가 路上亂民들에 잡혀 피살되었으며 정월 20일 午時경에 平康에 사는 최문환이가 春川亂徒 李昭應의 召募官이라 칭하고 함흥에 와서 參書官 睦裕信을 打殺梟首하고 주사 皮相國 洪丙贊은 燒殺한 사건으로 이에 최문환을 具格嚴囚하였음을 보고함.

(2) 보고서 제2호

建陽 元年 5월 11일 咸興觀察使 兼任 咸興裁判所 判事 김유성이 裁判檢事 金宅洙와 함께 최문환을 擄招한 내용을 법무대신에게 보고하는 내용

…… 최문환은 본시 平康郡民으로 砲軍을 嶺率하고 湫地嶺을 把守하던 자로 춘천의병대장 이소응의 소모관으로 차출되어 함흥으로 들어와 의병을 일으켜 命吏를 擅殺한 경우에 이르렀으나 實心은 爲國爲民하는 公憤에서 나온것으로 조금도 사사로운 마음이 없으며 생을 버리고 義를 취함에 죽어도 아쉬움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嚴加牢囚하였음을 보고함.

(3) 보고서 제5호

建陽 元年 6월 25일 함흥부관찰사 김유성이 법무대신에게 보고하는 내용

…… 최문환이 春川義兵大將 李昭應의 召募官이 된 경위와 함흥에서 활동한 사실, 金子玉을 召募官으로 한 사실과 이 때 사용한 첩지와 전령을 보고하며 더불어 최문환이 도피한 경위와 김자옥의 신병처리를 보고함.

5) 德報騰本<sup>31)</sup>

(1) 建陽元年 3월 6일 元山港知事 報告

咸興 巡檢이 開設될 때 사용하기 위하여 公服과 外套와 環刀 각60건을 싣고 巡檢 李昌雲 李龍弼이 2월 26일 원산항을 떠나 함흥으로 갔는데 2월 27일 함흥에서 일어난 巡檢 및 咸興 參書官 殺害사건에 대해 李昌雲이 겨우 살아 돌아와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

(2) 建陽元年 3월 19일 元山港知事 報告

함흥에서 일어난 참서관과 이하 관원 燒殺사건은 최참봉이란자가 춘천으로 부터 와서 행한 것이며 이어 각군에 발령하여 砲軍과 武士를 召募하고 富民에게 錢穀을 輸納케한 사실과 장차 이들이 원산항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과 日本守備隊長은 戒嚴함으로 인해 民心이 어지러움을 報告하는 내용

6) 平安南北道來案<sup>32)</sup>

(1) 報告書 제5호

建陽2年(1897) 4월 30일 平安北道 觀察使 署理 定州軍需 洪淳旭이 外部大臣에게 보고하는 내용.

李進士가 崔文煥을 죽인 이유, 崔文煥이 三水郡을 공격한 사실과 李進士가 돈을 주고 淸人을 고용한 것과 李進士 부대의 동향 등이 보고 되고 있음

특히 李進士가 崔文煥에게 中坪場과 甲山郡을 공격하자고 했을 때 최문환이 無罪한 百姓을 어떻게 砲殺할 수 있느냐고 반대하므로 이진사가 최문환과 同心同行하다가는 每每見敗할 것이라 말하고 內間領에서 淸人으로 하여금 崔文煥을 포살하였다는 내

31) 중앙정부 外部의 文書. 奎章閣 所藏 등록번호 17866.

德源은 함경남도 남부에 위치했던 덕원군의 군청소재지이며 德源灣안에 元山港이 있다.

32) 중앙정부 外部와 平安南北道와의 報告文書. 奎章閣 所藏 등록번호 17988. 外部編.

용이 있다.

(2) 報告書 제6호

建陽2年(1897) 5월 18일

平安北道 觀察使 署理 定州軍需 洪淳旭이 外部大臣에게 보고하는 내용.

1897년 3월 22일(음력) 崔文煥 義兵부대가 三水郡을 공격하는 상황과 李致泳이 崔文煥을 살해하는 사실과 義兵 5명 체포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2. 義兵(崔文煥)側 기록

최문환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기록은 閔龍鎬(1869-1922)<sup>33)</sup>의 關東倡義錄<sup>34)</sup>에서 찾을 수 있다.

關東倡義錄에는 乙未事變과 內政改革 斷髮令이 일어나자 舉義하기로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된 閔龍鎬는 乙未年 12월 23일에는 參奉 崔文煥을 咸鏡道 召募將으로 삼아 鎮北將으로 파견하였다.

이듬해 丙申年 1월 25일에는 “금년 1월 19일에 장군의 명령을 받고 함흥성에 들어가 보니 관찰사 목유신과 主事 皮가 洪가 두 사람이 원산항으로 부터 倭服과 倭刀를 二佰件을 가지고 왔으며 또 단발령을 독촉하므로 城底의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을 때 小將이 마침 도착하여 20일 밤에 觀察使와 主事 輩를 잡아 가두었고 이튿날 새벽에 萬民이 萬歲橋

頭에 모여 세 사람의 목을 베어 다리 위에 걸어놓고 黑服과 軍刀를 태워버렸으며 더불어 이미 선왕 王陵의 수호는 예전 관례에 따라 거행하고 여러 고을에 이미 시행한 和政을 革罷하였는데,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루라도 지방장관이 없을 수 없어서 境內에 일찍이 조정의 관리를 지낸 사람을 택해서 여러 사무를 보게하고 있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데 조정에 啓達하여 지방관리를 오래 비우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咸鏡道 召募士 崔文煥의 보고 내용이 있다.

이어 丙申年 4월 19일에 “咸鏡道 召募士 崔文煥이 와서 보고하기를 小將이 關北地方의 和政을 革罷하는 날에 유독 참서관 金澤秀<sup>35)</sup>를 목베지 않고 李濟馬를 맞아 들인 것은 參謀로 삼기 위함이었다. 李濟馬와 金澤秀가 內應하여 二月 後에 도리어 小將을 붙잡아 牢獄에 가두었는데 百姓들이 구출하는 바가 되어 다시 장군을 뵈게 되었읍니다하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丙申年 5월에 민용호가 함흥에 전하는 檄文에는 “..... 아 슬프도다 저 이제마란 자는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어 걸으로는 의병이라고하고 속으로는 개화당이 되어 최문환이를 잡아 가두었는데 다행이 많은 사람들의 의분에 힘입어 刑場의 禍는 면한 것이다 ..... 저 金澤秀라는 자는 어찌하여 임금의 祿을 먹으면서 倭의 政치를 하는 것이며, 저 李濟馬란 자는 어찌하여 義兵에 참여했다가 도리어

33) 閔龍鎬: 한말의 의병장. 본관은 여주, 호는 復齋.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경기도 여주에서 舉義한 뒤 강릉에 관동창의소를 설치하고 倡義大將에 추대되어 2,000여의 의병을 규합하여 日軍·官軍과 전투함. 1896년 3월 원산항을 공격하나 실패하고 8월 함흥에 입성할 때까지 수많은 왜적을 처단하였다. 저서로는 復齋集, 丙申日記가 있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국민장이 추서되었다.

34) 關東倡義錄은 1895년 10월 의병을 일으킬 때부터 1896년 10월 의병해산 때까지의 수많은 전투상황과 민심의 향배 및 왜군·관군들의 동태에 관해 일기체 형식으로 쓴 민용호 의병부대의 陣中日記이다. 復齋集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자료총서 제30 關東倡義錄, 서울, 대광인쇄공사, 1984, p. 20, 32, 55, 66

閔龍鎬 著, 李泰吉·閔植 譯: 國譯 復齋集, 昭文出版社, 1988, pp. 220-221, 249-250, p. 312, pp. 346-347

35) 각종 정부측 문서에 당시 함경도 참서관은 金宅洙로 되어있다. 따라서 관동창의록의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倭의 무리가 되었는가? 이 窩主(도둑의 괴수)를 소탕하지 않으면 그 禍가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를 것이다……”라고 하여 李濟馬를 반드시 소탕해야 할 인물로 표시하고 있다.

### 3. 李濟馬측 기록

이제마는 함흥에서 일어난 혼란을 진압하고 나서 올린 상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鎭撫時上疏<sup>36)</sup>에서 “…… 올미년 2월에 嫡母의 병환으로 하향 하였는데 7월에 노모가 세상을 떠나고 8월에 國母가 변을 당하였으며 사태가 姦臣의 脅權으로 削髮의 지경에 까지 이르렀음을 한탄하고 있다. 함흥에는 참서관 목유신이 관찰사 서리를 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원산향 경무관과 순검배들이 총으로 삭발할 것을 누차 명령을 내리니 위협하는 기세가 매우 심하여 백성들이 共憤하고 怒함이 쌓여 하늘에 이르고 있을 때에 平康陣 召募軍官 崔文煥이 春川 勇義大將의 指揮가 있음을 말하고 今年(丙申年) 正月 20일 三防營의 檄文을 가지고 본읍에 도착하여 四門에 걸어 놓으니 못 사람들의 쌓인 분노가 일시에 터져나와 그 다음날 參書官을 살해하였는데, 崔文煥은 舉措가 요란하여 雜流들과 결탁하고 木印을 많이 만들어 召募官을 널리 배치하여 各邑에 나누어 보내는 한편 밖에서 자본을 끌어 군대를 일으켜놓고 안으로는 돈과 식량을 수탈하는 등 실로 난리를 틈타 일을 널 조짐을 보입니다. 창졸지

간에 邑中에 주인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흩어지고 衆心은 喧騰하게 되니 고을의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 喪中의 臣을 毆박하므로 起復從事(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출사함)하여 一邑 주관하여 變亂을 평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答中川祐順書<sup>37)</sup>에서 이제마는 “……守舊者가 나라를 그르치고 開化者가 나라를 어지럽힌다. …… 옛 부터 聖賢의 方冊 중에서 風俗을 바꾸는 善政이 許多하였지만 하필이면 削髮하는 것이 善政의 急務가 되겠는가 …… 혼란한 때에 本國 倭도들이 적지 않아 豫防의 방법으로 本邑에 砲軍을 설치했을 뿐이며 다른 뜻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제마 死後에 세워진 追思碑文<sup>38)</sup>에는 “…… 최문환이 관리를 살해하고 모병한 사실이 서울과 원산향에 알려져서 공격을 받게되면 군민도 함께 화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군민이 공에게 처리를 부탁하므로 公이 최문환을 사로잡아 서울에 보고하여 처리를 기다리는 한편 원산향에 알려 일본군이 오지 못하도록 하여 군민이 무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 4. 其他 史料

#### 1) 독립신문<sup>39)</sup>

건양원년 6월 9일자 제28호에 “함흥부 관찰사 보고가 이달 4일에 법부에 왔는데 평강난류 최문환이가 함흥난류들을 몰아 임의로 관문에 들어와 참

36) 東武遺稿에 포함되어 있는 상소문으로 병신년 2월 4일 함흥 士人 韓鎭衡의 僮奴 李國翰을 시켜 疏章을 가지고 상경하게 하였는데 도중에 賊黨을 만나 소장을 빼앗기고 겨우 도망쳐 20일에 함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37) 東武遺稿에 포함된 것으로 병신년 2월 15일 최문환을 잡아 놓고 원산향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에 보내는 편지글이다.

38) 前高原郡守李公濟馬追思臺는 光武6年(壬寅·1902)에 金勉弼이 비문을 짓고 揚普淵이 씀. 東武遺稿중에 碑文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9) 1896년 4월 7일 徐載弼과 개화파가 합작하여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일간지.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었으며 격일간지로 출발하여 일간지로 발전하였다.

서관 목유승과 주사 피상구와 홍병찬을 죽인 죄로 최가 등인을 잡아 가두었다가 밤에 도망하였다니 이런 중대한 죄인을 어찌 허수히 가두었는지 이것은 본부 관찰사 담당이라 관찰사가 그 죄를 입어야 마땅할 듯 하더라" 라고 기록 되어 있다.

### 2) 黃玪<sup>40)</sup>의 梅泉野錄<sup>41)</sup>

건양원년에는 선유사를 파견하여 의병의 해체를 선유함과 더불어 강제로 삭발할때 전국이 흥분하여 의병이 일어 났으나 忠憤을 가지고 의병이 된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고, 명예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창의를 하거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라붙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배 몇 천명 혹은 몇 백명이 成群作黨하여 義兵이라 칭하였고, 심지어는 東匪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안면을 바꾸어 의병을 따르는 사람도 절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하여 온갖 음행과 약탈을 저질렀고 마치 미친 절도범들과 다름없는 사람도 있었다고 당시 의병을 평가하고 있다.

### 3) 金允植<sup>42)</sup>의 續陰晴史<sup>43)</sup>

병신년 3월 18일 (음력 2월 5일)에 함흥민란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11월 12일(음력 10월 8일)에는 樓洞 參判 (金裕

成)이 법부에 체포된 이유가 함흥에 재임하고 있을 때 匪魁 崔文煥을 놓친 때문임을 밝히고 있으며

12월 1일 (음력 10월 27일)에는 樓洞 參判 (金裕成)이 笞刑四十笞를 맞고 풀려났음을 기록하고 있다.<sup>44)</sup>

## IV. 總括 및 考察

한국 근대사의 특징은 開化와 保守의 葛藤, 그리고 外勢의 侵略에 대한 民族의 抗爭에서 찾아진다. 쇄국정치로 일관하던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병자수호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였다. 개항이후 세계정세에 대한 건문의 확대는 개화사상을 고조시켜 제도의 개편과 부국강병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반면에 외세의 침투로 인한 위기의식은 개화에 대한 강한 반대(衛正斥邪論)로 나타났다. 주로 性理學을 신봉하는 保守的인 儒生들에 의해 주도된 衛正斥邪運動은 뒷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었을 때 抗日義兵運動으로 연장된다.<sup>45)</sup>

1895년(乙未) 명성왕후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봉기한 초기의병(乙未義兵)의 지도층은 모두 儒生 의병장들 이었다. 초기 의병장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가장 완강한 斥邪衛正思想을 부르짖고 있던 華西 李恒老의 계보에 속하거나 또는 그들

40) 黃玪(1855-1910) 한말의 순국지사·시인·문장가. 본관은 장수, 호는 梅泉. 1910년 8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통분하여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41) 黃玪이 1864년(고종1)부터 1910까지의 역사를 정치사 중심의 편년체로 서술함. 黃玪 著, 金裕 譯:完譯 梅泉野錄, 서울, 敎文社, 1994, pp.380-382

42) 金允植(1835-1922) : 한말의 관료·문장. 호는 雲養, 서울출신.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의 독립을 허용하라는 長書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43) 한말의 정치가 김윤식의 陰晴史에 계속된 日記로서 1878부터 1921년 까지 25년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國史編纂委員會: 韓國資料叢書 제 11 續陰晴史, 서울, 1960, P.395, 411, 413

4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료총서 제11, 續陰晴史, 1960, p.395, 397, 407, 411, 413

45) 변태섭: 한국사통론, p.370, pp.384-385

과 관련이 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柳麟錫·李昭應 등). 이들은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목을 자르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身體髮膚 受之父母 髡頭可斷 髮不可斷)”라는 전통적인 주자학 윤리관에 입각하여 기병하였거니와, 일반 민중들은 단발=김홍집내각=개화(일본화)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의병의 공격대상이 일본군과 일인 거류민 뿐만 아니라 단발령을 강요하는 관찰사 군수 등도 포함되었던 것이다.<sup>46)</sup>

1896년(丙申) 양력 2월 함흥지방에서 일본 巡檢과 함흥부 관리들이 살해된 사건을 咸興民亂(崔文煥의 亂)<sup>47)</sup>이라 한다. 당시 關東義兵의 召募士·鎮北將이었던 崔文煥은 함흥부 관찰사서리 참서관 陸裕信과 주사 皮相國·洪丙贊을 살해하고 일본복장과 칼을 불태워버렸다. 이런 최문환을 李濟馬가 붙잡아 가둠으로 인해 역사가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 1. 亂의 經過過程

본 연구는 崔文煥의 亂을 중심으로 李濟馬의 生涯와 思想에 대한 검토가 主目的이므로 사건의 발생과 경과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96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태양력을 사용하였으나 의병들

은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였으므로 많은 史料에서 날짜들이 서로 혼용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저자가 정리·요약한다.

1895년(乙未) 8월 乙未事變 발생.

1895년(乙未) 11월 15일 斷髮令 내려짐.

1895년(乙未) 11월 17일 → 태양력 1996년 1월 1일

1896년 1~2월 함흥에서는 함흥부 官吏들은 주민들에게 단발을 강요하고 있었다.<sup>48)</sup>

1896년 2월 26일(陰 丙申·1·14) 함흥 巡檢이 개설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원산항 순검 2인이 公服과 外套와 還刀 각 60건을 신고 원산항을 떠나 함흥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이를 보고 놀리자 순검이 칼을 빼서 욕을 하므로 아이들이 돌을 던져 한사람은 즉사하고 한사람은 겨우 위험을 면했으며, 또 行商으로 머물던 일본인 한명이 路上亂民들에 잡혀 피살되는 등 일본세력에 대한 저항감이 일고 있었다.<sup>49)</sup>

3월 2일(음 1·19) 관동의병(대장 민용호)의 召募士·鎮北將인 崔文煥 함흥 도착.<sup>50)</sup>

3월 3일(음 1·20) 최문환 함흥부내에 의병계문을 붙이고 咸興府 觀察使署理 參書官 陸裕信과 主事 皮相國·洪丙贊을 붙잡아 가둠.<sup>51)</sup>

3월 4일(음 1·21) 이들을 殺害하고 일본복장과

46) 국사편찬위원회 : 한민족독립운동사 1, pp 341-355

47) 정부측 입장에서 咸興民亂이라 하고 乙未義兵운동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마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편의상 이제마와 직접 관련이 있는 최문환의 이름을 붙여 崔文煥의 亂이라 한다.

48) 국사편찬위원회 : 관동창의록 P. 32

49) 국사편찬위원회 : 관동창의록 P. 32

司法稟報 : 보고서 1호

德報謄本 : 3월 6일 원산지사 보고

東武遺稿 : 鎮撫時上疏

50) 국사편찬위원회 : 관동창의록 P. 32

51) 국사편찬위원회 : 관동창의록 P. 32

東武遺稿 : 鎮撫時上疏

司法稟報 : 보고서 1호

칼을 불태워 버렸다.<sup>52)</sup>

3월 17일(음 2·4) 李濟馬가 최문환을 잡아 가두고 상소문을 서울로 보냄(鎭撫時上疏).<sup>53)</sup>

3월 24일(음 2·11) 李濟馬 北路宣諭委員(三品)에 임명됨.<sup>54)</sup>

3월 28일(음 2·15) 李濟馬가 원산항의 일본군에 편지를 보냄(答中川祐順書).<sup>55)</sup>

4월 2일(음 2·20) 상소문을 가지고 서울로 갔던 韓鎮衡이 도중에 상소문을 뺏기고 겨우 도망쳐 함흥으로 돌아옴.<sup>56)</sup>

4월 11일(음 2·30) 함흥관찰사 金裕成 함흥도착.<sup>57)</sup>

4월 24일(음 3·12) 함흥부 주사 金宅洙 咸興府 參書官에 임명됨.<sup>58)</sup>

5월 17일(음 4·5) 卯時에 최문환 감옥에서 도망감(당시 監獄刑吏 金順命·鎖匠 朴永萬)<sup>59)</sup>

5월 30일(음 4·19) 최문환이 이제마에게 붙잡히게 된 경위와 백성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도망치게 된 경위를 閔龍鎬에게 보고함.<sup>60)</sup>

6월 7일(음 4·26) 함흥관찰사 김유성이 스스로 인책하는 상소를 올림.<sup>61)</sup>

7월 1일(음 5·21) 함흥관찰사 김유성이 물러나 고자하는 상소를 올림.<sup>62)</sup>

8월 12일(음 7·4) 김유성 譴責받음.<sup>63)</sup>

11월 7일(음 10·3) 김유성이 重囚를 見失한 죄로 法部의 심판을 받게됨.<sup>64)</sup>

1896년 11월 23일 李濟馬 高原郡守에 임명됨.<sup>65)</sup>

1897년 4월 崔文煥 平安道 三水郡 甲山郡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 內關嶺에서 사망.<sup>66)</sup>

1898년 4월 13일 李濟馬 高原郡守에서 免職됨<sup>67)</sup>(군수 재임기간 약 1년 5개월).

## 2. 崔文煥의 行動

최문환은 본시 平康郡民으로 砲軍을 嶺率하고 湫地嶺을 把守하며 參奉의 벼슬을 하고 있었다. 강릉 의병대장 민용호(춘천 의병대장 이소응)<sup>68)</sup>의

52) 국사편찬위원회 : 관동창의록 P. 32

東武遺稿 : 鎭撫時上疏  
司法稟報 : 보고서1호

53) 東武遺稿 : 鎭撫時上疏

54) 관보 282호

55) 東武遺稿 : 答中川祐順書

56) 東武遺稿 : 鎭撫時上疏

57) 司法稟報 : 보고서1호

58) 관보 308호

59) 法部 起案 : 案 제 11호, 19호

60) 국사편찬위원회 : 관동창의록 P. 55

61) 日省錄 : 양력 1896년 6월 7일

62) 日省錄 : 양력 1896년 7월 1일

63) 日省錄 : 양력 1896년 8월 12일

64) 日省錄 : 양력 1896년 11월 7일

65) 관보 491호

66) 평안남북도래안 보고서 5호, 6호

67) 관보 926호

68) 사법품보 보고서 2호(1896년 5월 11일)에는 이소응의 소모관으로 되어있으나 관동창의록에는 민용호의 소모관으로 나타난다. 최문환은 양쪽 의병군대에 모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모관으로 차출되어 함흥으로 들어와 의병을 일으켜 단발령을 강요하던 함흥관리들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實心은 爲國爲民하는 公憤에서 나온 것으로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으며 生을 버리고 義를 취함에 죽어도 아쉬움이 없다고 말하였다.<sup>69)</sup> 그는 이제마에게 붙잡혀 옥살이를 하다 도망친 이후에도 의병활동을 계속하였다. 建陽2年(1897) 4월경 李進士(李致泳)와 같이 평안도에서 의병활동 중에 李進士가 崔文煥에게 中坪場과 甲山郡을 공격하자고 했을 때 최문환이 無罪한 百姓을 어떻게 砲殺할 수 있느냐고 반대하므로 이진사가 최문환과 同心同行하다가 每每見敗할 것이라 말하고 內間嶺에서 淸人으로 하여금 崔文煥을 砲殺하였다는 내용이 있다.<sup>70)</sup>

이로 미루어 볼 때 최문환은 斥邪衛正의 정신으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고 특히 백성의 안전과 義를 주장함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3. 李濟馬의 行動

이제마는 1895년(乙未) 2월에 함흥으로 하향하였고 7월에 嫡母가 사망하였다. 1896년 2월 함흥에 소요가 발생하여 민심이 혼란하던 중 喪中에 있는 이제마를 주민들이 핍박하여 재촉하므로 최문환을 붙잡아 난을 진압하였다. 이후 서울과 원산에 이 사실을 알려 군대의 동원을 막음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했다.<sup>71)</sup> 이 난을 진압한 공으로 이제마는

1896년 3월에 선유위원에 임명되고 11월에 고원군수에 임명되었다가 1898년 4월에 고원군수에서 면직되었다.<sup>72)</sup>

### 4. 評價 및 考察

乙未事變과 斷髮令으로 폭발한 乙未義兵은 주로 衛正斥邪論을 주장한 전통적인 儒林들이 지도층이었다. 위정척사론은 李恒老계열과 嶺南의 南人, 湖南의 奇正鎮계열에 의해 주도되어 義兵들의 思想的背景이 되었다.<sup>73)</sup> 1896년 2월 咸興에서 崔文煥이 중심이 되어 斷髮을 강요하던 官吏들을 殺害한 사건도 이러한 사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李濟馬가 崔文煥을 붙잡게 된 動機와 經過過程이다.

崔文煥에 따르면 함흥에서 化政을 革罷할 때 李濟馬를 맞아들여 參謀로 삼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閔龍鎬의 檄文에는 李濟馬를 '外義內和' '倭之黨' '窩主'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sup>74)</sup>

李濟馬에 따르면 崔文煥은 밖에서 자분을 끌어 군대를 일으켜놓고 안으로는 돈과 식량을 수탈하는 등 실로 난리를 틈타 일을 널 조짐을 보였다고 하였으며<sup>75)</sup>, 追思碑文에는 최문환이 관리를 살해하고 募兵한 사실이 서울과 원산항에 알려져서 공격을 받게 되면 군민도 함께 화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공이 亂을 평정하여 안전을 도모하였다고 한다.<sup>76)</sup>

69) 司法稟報 보고서 2호 (1896년 5월 11일)

70) 平安南北道來案 보고서 5호, 6호

71) 東武遺稿: 鎮撫時上疏, 前高原郡守追思臺

72) 관보 282, 491, 926호

7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1, P.307-310

74) 국사편찬위원회: 관동창의록, P.55,66

75) 東武遺稿: 鎮撫時上疏

76) 東武遺稿: 前高原郡守追思臺

中央政府의 文書<sup>77)</sup>에는 함흥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을 亂民·亂流·亂徒의 行爲로 보고 있으며 최문환은 관리를 살해한 重罪囚·匪魁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최문환을 놓친 관찰사 金裕成에게 罪를 묻고 있다. 나아가 독립신문<sup>78)</sup>에서는 최문환이 도망가자 중죄인을 놓친 관찰사는 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續陰晴史<sup>79)</sup>에서도 소요를 난민의 행위로 보았으며 匪魁 최문환을 놓친 죄로 金裕成이 笞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梅泉野錄<sup>80)</sup>에서는 당시 의병들이 忠憤을 가지고 의병이 된 사람보다 명예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崔文煥의 亂은 洪<sup>81)</sup>의 주장처럼 복반을 꾀한 것이 아니라, 日本勢力의 浸透와 開化정책에 반대해 일어난 乙未義兵의 일환으로 朱子學의 衛正斥邪運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李濟馬는 스스로 “守舊하는 자는 나라를 거스리고 開化하는 자는 나라를 어지럽힌다”<sup>82)</sup>고 하여 兩非論의 입장을 견지하며, 혼란을 빌미로 元山港의 日本軍의 공격으로인한 住民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亂을 진압한 것이다. 그러나 이 행동은 훗날 日本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한국민족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마가 의병을 탄압했다’는 비난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를 근거로 볼 때 李濟馬는 의병들이 주장하는 衛正斥邪의 朱子學的 文化理念이나 復古主義的 政治理念과는 다른 思想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

며, 내면적으로는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民族運動史의 측면에서 衛正斥邪의 정신으로 일종의 침략을 반대하고 특히 無罪한 百姓의 安全과 義를 주장함에 목숨을 아끼지 않은 崔文煥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V. 結 論

1. 1896년 咸興에서 崔文煥이 중심이 되어 斷髮을 강요하던 官吏들을 殺害한 사건은 衛正斥邪를 주장하는 乙未義兵運動의 일환이었다.
2. 李濟馬가 崔文煥을 붙잡아 亂을 진압한 것은 元山港의 日本軍으로부터 住民의 安全을 최우선으로 圖謀하기 위한 行動이었다.
3. 李濟馬는 儒生義兵들이 주장하던 衛正斥邪의 朱子學的 文化理念과 復古主義的 政治理念과는 다른 思想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향후 民族運動史의 측면에서 義兵將 崔文煥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77) 日省錄, 起案, 司法稟報, 德報謄本 등의 문서에 나타나 있다.

78) 건양원년 6월 9일 제 28호

79) 국사편찬위원회 : 속음청사, P. 395, 411, 413

80) 黃玪 著, 金裕 譯 : 完譯 梅泉野錄, P. 380-382

81) 洪淳用 : 東武의 生涯와 思想, 동양의학26호 9(3):4-9, 1983

洪淳用·李乙浩 譯述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85, pp. 393-402

82) 東武遺稿 : 答中川祐順書



## 參 考 文 獻

1. 강만길 : 한국근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2. 官報 227·282·308·491·926호 : 舊韓國 官報, 영인본,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3. 國史編纂委員會 編 : 韓國史料叢書 第三十 關東 倡義錄, 國史編纂委員會 發行, 1984
4. 國史編纂委員會 編 : 續陰晴史, 國史編纂委員會 發行, 1960
5. 국사편찬위원회 : 한민족독립운동사 1, 서울, 탐구당, 1987
6. 起案 : 奎章閣 所藏 등록번호 17277의1, 17277의2, 17277의9
7. 金鎬城 : 韓末 義兵運動史 研究, 서울, 고려원, 1987
8. 德報謄本 : 奎章閣 所藏 등록번호 17866
9. 독립신문 : 건양원년 6월 9일 제28호, 서울, 조선
10. 동아일보 : 1984년 10월 20일 6면, 서울, 대한민국
11. 동아일보 : 1985년 1월21일 6면, 서울, 대한민국
12. 閔龍鎬 著, 李泰吉·閔植 譯 : 國譯 復齋集, 昭文出版社, 1988
13. 朴性植 :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8(1):17-32, 1996
14. 邊太燮 : 韓國史通論(四訂版), 서울, 일조각, 1997
15. 司法稟報 : 奎章閣 所藏 등록번호 17278
16. 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編輯 : 日省錄 高宗篇 33, 影印本, 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發行, 1970
17. 宋一炳 : 李濟馬 生涯의 시대적 배경, 漢醫師協報, 1985년 8월 15일 5면
18. 이이화 : 이야기인물한국사1, 서울, 한길사, 1993
19. 李濟馬 : 東武遺稿, 筆寫本, 年期末詳, 精神文化 研究院藏書 등록번호 008022
20. 平安南北道來安 : 奎章閣 所藏 등록번호 17866
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6
22. 洪淳用 : 東武의 生涯와 思想, 동양의학 9:3(26호), 1883
23. 洪淳用·李乙浩 譯述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85
24. 黃玆 著, 金溶 譯 : 完譯 梅泉野錄, 서울, 敎文社, 1994